

청각장애인 서재호 듣지는 못하지만 빵만들기는 자신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400만명의 장애자가 있다.
수치로 따진다면
국민 100명당 9명이 장애인이다.
우리가 이 달에 만난 서재호씨도 장애인이다.
400만명중 한명일 수도 있고
처음 제과기술을 배우는 초년병일 수도 있는
그의 생활을 여과없이 엮어본다.



서재호, 서른 두살. 아직은 미혼. 이년째 제과기술을 배우고 있다. 기술을 늦게 배우기 시작해 동년배에 비해 경력이 짧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이제 스물 대여섯 정도로 보이는 그는 동안(童顔)의 얼굴이다.

그러나 그는 제과점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기술자는 아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언제부터 제과일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등등 모든 궁금한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야 하고 그는 펜을 이용해 질문에 답을 해야한다.

청각장애자인 그와의 대화는 펜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타인과 대화를 하는데 비해 청각장애인은 글로써 서로의 생각을 교환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할 문제이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다.

어디 사세요. 만약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면 그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산다는 얘기를 할 것이다. 결코 그가 친절해서가 아니다. 이미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 외의 답까지 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만약 묻는 질문에 고지식하고 “어디서 살아요”라는 대답만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무뚝뚝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뿐이다. 때때로 우리는 질문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와의 대화는 이런 무뚝뚝한 질문과 답을 계속해야만 했다. 묻는말에만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문은 많아지고 세분화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귀찮아지면 그와의 얘기는 거기서 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이다. 묻는 의도를 서로가 이해하지 못할 때다. 그러면 질문을 이해할 때까지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슷한 말들을 찾아야 한다.

한편론 재미있는 일도 있다.

“힘들지 않나요?”라고 메모지에 쓰면 그는 ‘않나요’를 지워버리고 ‘요’를 쓴다. 그러면 ‘힘들어요’가 된다.

그는 현재 (주)부흥 식품사업부에 다니고 있다. 우리에게는 약간 낯선 이름이다. 다시

이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원첵 도우넛이라고 알려준다. 그가 원첵에 입사한 것은 작년 2월 1일이다. 과천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추천으로 이곳에 입사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다니던 곳은 단추공장. 경력 6년의 기술자였다.

어렵게 배운 기술을 포기하기까지 힘들지 않았냐고 물으니 탄 소리가. 형님께서 배우라고 했단다.

그에게 형님의 위치는 대단하다. 비행장 회사원이라는 형님은 그에게 제과기술 배우기를 권유했다. 모든 의논은 형님과 하고 대부분은 따른다. 현재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형님이 가끔씩 회사에 들러 그를 격려해준다. 요즘은 일이 바빠 조카들을 자주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한번씩 가면 자신이 만든 빵을 갖다주는 것도 그의 큰 즐거움이다.



아무튼 제과라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눈치다. 처음에는 남하는 것 따라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작업대에 글씨를 써서 배우고 하는 식으로 기술을 익혔다.

요즘 그에게 가장 힘든 것은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이다. 남들이 집으로 돌아와 TV앞에 앉아 있을 9시에 그는 출근을 한다. 그리고 새벽 6시에 퇴근을 한다. 대충 씻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아침 8시 정도. 다시 오후 1시에 일어난다. 학원에 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노량진에 있는 현대제과기술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출근 준비를 한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철산동 집에서 노량진 학원까지 왔다갔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는 학원에서도 제법 모범생으로 꼽힌다.

아직까지 별다른 결석도 하지 않았고 수업도 잘 따라오는 착실한 학생이다.

오히려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기 능력은 함께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단다.

야간 근무가 끝나면 다시 학원에 가서 빵 만드는 기술배워

그런데 본의 아니게 결석을 했다. 지난 여름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학원에서 특강반을 만들었는데 전달이 그에게는 안됐던 모양이다. 아마도 선생님께서 수업중에 말한 것을 그가 듣지 못했나 보다. 듣는다는 표현을 쓰니 약간은 이상하다. 사실 청각장애자도 정상인이 하는 말을 메모없이 알아듣는 방법이 있다. 구화(口話)라는 것이다. 이것은 청각 장애인들이

저녁 9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에 퇴근을 한다. 5~6시간 정도의 낮잠을 잔후 다시 학원으로 향한다. 고된 하루일과지만 재미는 있다.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 사람들의 입술 모양을 보고 알아듣는 방법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입술 모양을 그대로 흉내내서 연습을 하면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은 항상 상대방의 입술 모양에 주목해야 하는데 타인이 하는 말을 놓치지 않고 본다는 것이 어렵다. 또 말하는 사람이 항상 정확한 발음을 구사한다는 보장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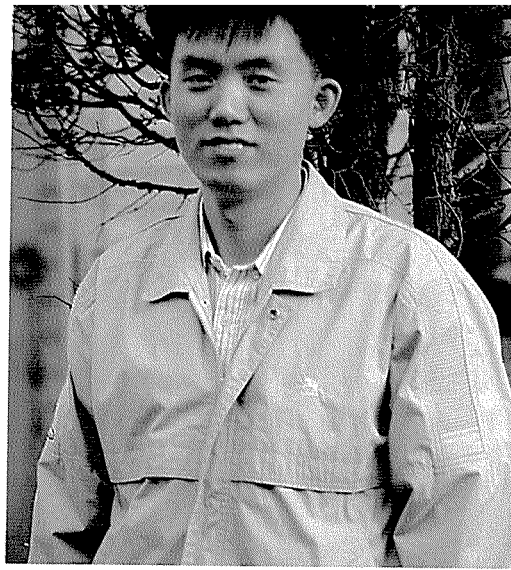
그래서 수화(手話)를 사용하게 되고 이도 어려울 경우에는 메모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구화라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게 되니 이 능력도 점점 퇴화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용하는데 인내가 필요한 구화를 점점 생략하는 것이다.

그런데 직장과 학원을 오가는 팍팍한 지금의 생활도 11월에는 끝이 난다. 학원 수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 그는 학원 수료후 몇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윈첼 도우넛 같은 제과공장에 취업을 하거나 윈도우 베이커리에 취업을 하는 것이다. 지금 다니는 직장도 괜찮지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과점을 하나 차릴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준비를 하는 단계는 아니란다. 아마 형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를 위해서 제과기술 배우기를 권유했던 것 같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독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자영이 최고하는 판단 때문이다.

형의 권유로 제과공장에 취업하고 학원다니기 시작

그는 정확한 성격의 소유자다. 내성적이어서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을 하다가 틀린말이 있으면 곧장 수정을 한다. 또 지금까지



했던 말들 중에서 기억이 나지 않아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취소를 한다.

자신이 입사한 날짜, 학원 다닌 날짜부터 그를 현대학원에 소개해 줬던 사람의 수료날짜까지 기억할 정도다.

또 지난 여름에 봤던 제과제빵기능사 필기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공부하기가 어려웠냐고 물었더니 공부하는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시험이 어려웠을 뿐이란다.

정상인이라면 대충 알아듣겠거니 하면서 넘어가는 말에 그는 신경을 쓴다. 한마디 한마디 말이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글씨를 또박또박 잘 써서 별의미 없이 '글씨를 참 잘쓰시네요'라고 했더니 대뜸 '高卒'이라고 한문을 쓴다.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다.

그는 태어날때부터 청각을 잃었기 때문에 국민학교부터 특수교육을 받았다. 군산농화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서울 선화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모두 이곳에

2 서른 두살, 이제 제과기술을 배운지 이년 남짓이지만 목표는 크다. 제과점을 경영해 보는 것이 그의 꿈이다.

3 그와의 대화는 문답식으로 이뤄졌다. 메모지에 질문을 적으면 그는 성의껏 대답을 한다.

4 "다 구워졌다."오리 조리 살피는 모습이 진지하다.

서 만난 사람들이다. 이들과는 동네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바다농아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한다. 동병상련을 느낀 이들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친해질 수 있듯이.

그래서인지 학원측에서는 그가 착하고 성실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말하는데 그는 학원 친구들을 지인(知人)이라고 표현했다. 아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이다. 친하지 않냐고 재차 물으니 친하다고 대답하면서도 지인이라고 표현한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듣지 못한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다.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전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혼자 사는 그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문득 외로움을 느껴 누군가 보고 싶을 때 그는 어떻게 할까.

장애자 협회가 추천한 바로는 전국에 장애인인 400만명 정도라고 한다.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은 정신지체아이고 다음은 지체부자유자, 청각장애자(농아), 시각장애자(맹아)의 순이다. 이들은 대부분 특수학교에서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수교육이 장애자를 더욱 사회에서 고립시킨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옳은 말이다.

그에게 언제가 제일 답답하냐고 물으니 단 한마디로 대답을 했다. "농아"라고.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장애자임을 잊을 수 있는 날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라. (글 김주희) 